

‘광주형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사업 속도 낸다

시, 지역기업 첫 기술교류회 전략산업 연구·협업방안 논의 지역 인재육성·채용 등 강화 “AI산업 경쟁력 제고에 주력”

광주시가 최근 유치한 팹리스기업 에이미퓨처와 지역 수요를 반영한 ‘광주형 인공지능(AI)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낸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구 유담부티크 호텔&레지던스에서 지역전략산업과 융합한 ‘광주형 AI반도체 개발을 위한 첫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술교류회에는 김창수 ㈜에이미퓨처 대표, 김성창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본부 실장을 비롯해 두영실업㈜, ㈜알파녹스, 엔에이치네트

웍스㈜, 인트플로우㈜, ㈜호그린에어 등 지역 수요기업 5개사와 광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지난 9월 반도체 설계(팹리스) 분야의 세계적 디자인하우스 기업인 에이직랜드에 이어 10월 칩리스기업인 에이미퓨처와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 수요 기업의 제품에 광주형 AI반도체 칩을 적용해 제품화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팹리스(Fabless) 기업이란 Fabrication과 less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반도체를 직접 제조(fabrication)하지 않고 설계만 하는 기업을 말한다. 또 디자인하우스(Design House) 기업은 팹리스에서 설계한 반도체 도면을 생산공정(파운드리)에 적합 제조용 설계도면으로

재설계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칩리스(Chipless) 기업은 반도체 생산을 위한 아이디어·특허 등 지식재산권(IP)을 설계·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이날 기술교류회는 국내 지능형 반도체 개발을 선도하는 ㈜에이미퓨처와 광주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수요기업이 광주형 AI반도체 개발을 위해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에이미퓨처와 지역 수요기업 5개사는 상호 보유 기술 및 제품 소개, 광주형 AI반도체 개발 및 적용 방안 등을 협의했다.

㈜에이미퓨처는 2020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LG전자 미주연구소에서 인공지능 핵심기술을 연구하던 연구원들이 모여 만든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개발해 단말형 인공지능

(온디바이스 AI) 시스템에서 필요한 지식재산권(IP)과 AI알고리즘과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역 수요기업들은 ㈜두영실업의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알파녹스의 개인지향형헬스케어 기술, ㈜엔에이치네트웍스의 전기차 충전소 화재 조기 예측 기술, ㈜인트플로우의 비대면 축산 관리 솔루션, ㈜호그린에어의 수소연료전지 고장 예지보전 기술 등 다양한 AI기반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에 안착한 팹리스기업이 개발한 반도체 기술의 실증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 ‘광주형 AI반도체’ 기술 개발과 함

께 지역 인재 육성과 채용에도 힘쓴다.

AI와 지능형 반도체의 융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산업 전반에 걸쳐 높은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술의 글로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팹리스기업인 에이직랜드와 에이미퓨처가 광주에 오면서 광주 AI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밝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고가의 외국산 반도체 칩에 의존했던 지역 기업들에게 가격 경쟁력이 확보된 AI반도체와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게 돼 지역기업의 제품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팹리스기업들이 광주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G-패스’ 카드디자인 시민 설문·투표

선호도 조사 거쳐 최종 확정

광주시가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인 ‘광주G-패스’를 상징하는 교통카드 디자인을 시민 참여로 결정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G-패스 카드 디자인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광주온(ON) 설문과 오프라인 투표를 함께 실시한다.

‘광주G-패스’는 2025년 1월부터 대중교통비에 대해 어린이 무료, 청소년 반값, 성인은 K-패스와 연계해 20~64%를 환급하는 정책이다.

광주시는 광주온(ON)에서 시민 정책 참여단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청소년·성인용 교통카드 디자인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상무역·광주송정역·금남로4가역·동명중학교·시청 등 5개소에서 직접 시민의 의견을 묻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온(ON)

누리집(<http://gwangjuon.gwangju.go.kr>)에서 ‘시민정책참여단’에 가입한 후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도안 순으로 1~3위를 선정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카드 디자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광주G-패스 카드는 빠르면 2025년 1월부터 편의점 등 한패이카드 지정 가맹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한 후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등록하면, 내년부터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는 즉시 어린이는 100%, 청소년은 50% 할인받는다.

19살 이상 성인은 우선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https://korea-pass.kr>)에 회원 가입하고,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다.

노병하 기자



광주-전남 산림조합 임직원 한마음 대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6일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24 광주-전남 산림조합 임직원 한마음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솔라시도 관광레저산업 투자유치 박차

재생에너지 등 기업체 팹투어 기업도시 조기 활성화 등 전력

전남도는 최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솔라시도에서 부동산 개발, 재생에너지, 스마트팜 등 기업체를 초청, 솔라시도 기업도시 인지도 제고와 관련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팹투어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솔라시도는 전남도에서 역점 추진하는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자연과 사람, 첨단 정보통신(IT)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형 첨단 생태도시, 친환경 에너지 선도도시, 서남해안 관광·레저 거점도시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팹투어는 지구별 사업계획 브리핑과 현장 시찰, 기업도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한 문화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지구별로 △구성지구는 솔라시도 홍보관, 솔라시도 CC, 산이정원 △삼호지구는 사우스링스 영암, 코스모스링스, 페어웨이빌리지 예정부지 △기업도시 진입도로와 솔라시도 대교 △삼포지구는 F1홍보관 방문, 국제자동차경주장 서킷체험 등 문화체험이 이뤄졌다.

기후변화대응 미래도시 구성지구는 98MW급의 태양광 발전단지, 태양의 정원, 골프장 18홀, 전남 최초 정원형 식물원인 산이정원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녹색융합 클러스터 등 10여 개 국가재정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조성 부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세제감면과 규제특례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4200가구 규모의 레저·리조트형 주거단지 솔라시도 골프앤빌리지와 특

급호텔 조성도 추진된다.

골프특화 관광레저도시 삼호지구는 사우스링스 영암, 코스모스링스 등 대중제 골프장 63홀이 완공돼 운영 중이다. 앞으로 108홀 규모의 프리미엄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단독주택 내 필드 골프 연습이 가능한 페어웨이 빌리지, 친수환경을 갖춘 시니어타운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자동차문화 중심도시 삼포지구는 1단계 사업으로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조성돼 국내 주요 모터스포츠 대회 등이 연 150일 이상 개최되고 있다. 프리미엄자동차 연구센터가 들어서 부품개발, 기술 실증 등 튜닝산업 육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2단계 사업으로 경주장 배후부지에 인공래프팅, 카누 슬라럼 등 역동적 해양레저체험이 가능한 벨로시티 리버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한전산업개발(주)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남 사랑(愛) 서포터즈 활성화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는 홍보활동 현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연말정산을 대비해 수도권 직장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와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혜택 등을 알렸다.

이번 이벤트는 전남도청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후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주문·수령한 다음 후기를 작성하면 기존 답례품 외에 전남쌀을 추가 답례품으로 증정하는 행사다. 추가 답례품은 2만 원 상당 전남산 쌀이다. 해당 쌀은 나누우리쌀과 왕건이담남쌀, 황도관쌀, 나비쌀, 수호천사건강미다.

잠실역 행사 현장에서는 김경애 광주전남시도민회 여성회장을 포함한 15명이 고향사랑 캠페인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

다.

기부에 참여한 한 직장인은 “전남에 계시는 부모님이 생각나 동참했다”며 “모금된 기부금으로 전남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전남에 사랑과 응원을 보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모금된 기부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소중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된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이나 농협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지역특화 ‘레전드 50+ 2.0사업’ 추진

소재·부품 등 중기 육성

전남도가 지역특화산업 분야인 소재·부품과 친환경에너지, 바이오·헬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 ‘레전드 50+ 2.0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레전드(Region+End) 50+는 지역특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중소기업 매출을 국내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의미다.

전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화산업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정책자금을 지원, 기술·사업화 등 3년 동안 집중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1월 1.0사업으로 이차전지 연관 분야 44개 기업을 선정하는데 이어 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등 3개 분야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국비 39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책자금(융자)과 제조 혁신, 수출지원, 기술보증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지역 미래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27일까지 전남도 혁신성장플랫폼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등 해당 산업 분야를 이끌 예비 선도기업이면 지원 가능하다. 사업 목적성, 참여 필요성, 목표 적정성 등 선정평가를 통해 30개 안팎의 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12월로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 통합공고 절차에 따라 다양한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오지현 기자

@jnilbo

Kakao Talk : 전남일보
E-Mail : jebo@jnilbo.com

전남일보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